윤 정부 '5·18 진상규명' 적극적 의지 보여야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예정
"의혹·쟁점 해소 국민통합 동력"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입장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철저한 진상조사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직 규명되지 않은 각종 의혹과 쟁점이 해소돼야 헌법 전문에 실리는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와 정신이 제대로 반영되고 국민 통합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도 보다 적극적으로 5·18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5·18 진상규명조사위 핵심 관계자는 광주일보와 만나 "위원회가 조사 활동을 시작한 지 2년 5개월이 지났지만 21개의 직권조사과제 가운데 조사 진행률은 목표의 절반을 조금 상회하는 상황"이라며 "아직도 많은 의혹들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보안사와 국정원 등이 많은 증거와 자료들을 조직적으로 파기한데다 가해자들이 입을 다물면서 진상 규명에 있어 좀처럼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전혀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암매장 제보 현장 54개소에 대한 선행조사를 실시했고 올 하반기에 5군데를 발굴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작전에 참여했던 계엄군들로부터 희생자의 가매장 장소와 숫자를 특정하고 이후 그 가매장된 희생자의 사체를 수습한 사체수습반 운용 과정의 추적을 거쳐 암매장 장소를 확인한 뒤 올 하반기 발굴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또 발포 명령과 계통에 대해서는 현장 지휘 책임자들과 명령 계통에 개입했던 당시 신군부 인사들은 여전히 침묵과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작전 현장에 있었던 당시 계엄군들에 대한 방문 전수조사를 통해 확보된 진술과 증언을 종합하고 '움직일 수 없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 진압작전의 실질적 지휘선상에 있었던 책임자들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계엄군이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총 51건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도 이뤄지고 있지만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인정 진술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가해당사자가 특정되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42년 전, 진압작전에 참여했던 계엄군의 개인적 고통과 아픈 기억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도 필요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5·18 진상 규명의 의지를 보이고 이들의 양심 고백을 이끌어 낼 환경을 조성해 막바지로 가고 있는 5·18 진상 규명에 동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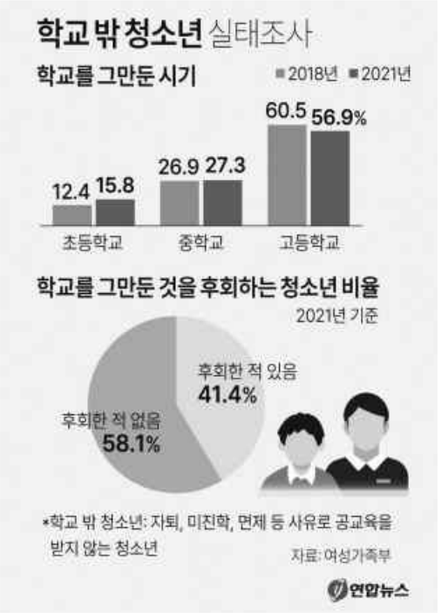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 강진 군동면 청람중학교 전교생이 옛 전남도청앞에서 5·18현장체험학습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사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하는 한편 5·18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도 메시지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5·18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진상 조사에서 있어 가장 큰 장벽은 가해자들의 '다문 입과 닫힌 가슴'이었다"며 "보수 진영을 기반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가 진상 규명의 의지를 보인다면 80년 5월의 진실은 국민대통합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학교 밖 청소년 비율 증가
고등때 줄고 초·중때 늘어
35.7% "진로 결정 못 했다"



최근 3년 새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이 고등학교 시기에는 낮아졌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에 그만두는 비율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17일 공개한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자퇴, 미진학, 면제 등 사유로 공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시기는 고등학교 때가 56.9%로 가장 많았으나 3년 전인 2018년보다는 3.6%P(포인트) 낮아졌다. 이어 중학교 27.3%, 초등학교 15.8% 순으로, 각각 0.4%P, 3.4%P 높아졌다.

학교를 그만둔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의미가 없었기 때문'(37.2%)이었다.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은 35.7%로 가장 높았다. 정규학교 복학(대학 진학 포함), 검정고시 준비를 계획한다는 비율이 그 뒤를 이었다.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한 적이 있었던 청소년(41.4%)보다 후회한 적이 없었다는 청소년(58.1%)이 더 많았다. 후회했던 이유로는 친구를 사귈 기회가 줄었다는 것,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없는 것, 졸업장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꼽았다.

학교 밖 청소년은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수업(36.7%), 원하는 것을 배우거나 연계해 주는 지원 서비스(27.2%), 진로 탐색과 체험 기회(24.9%) 등이 있었다면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학교를 그만둔 이후 10명 중 8명은 검정고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진학정보 제공, 검정고시 준비 지원, 진로탐색 체험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7개 유형 기관 227곳 내 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329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연합뉴스

코로나 감소했지만 오미크론 변이 잇따라 등장
세부계통 추가 검출 방역당국 역학조사…광주·전남 2000명대

코로나19 감소세에도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 세부 변이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1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광주 881명, 전남 1255명 등 2136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되는 등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이날 3만5117명을 기록하는 등 감소세를 이어갔다. 휴일 영향을 받은 전날(1만3296명)보다 2.64배 수준으로 늘긴 했지만, 최근 화요일 발표 수치와 비교하면 감소세가 뚜렷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 전인 지난 10일(4만9923명)보다 1만4806명, 2주 전인 3일(5만1118명)보다 1만6001명 각각 감소했다.

화요일 발표 신규 확진자 수만 보면 2월1일(1만8천333명) 이후 15주 사이 가장 적다.

이처럼 신규 확진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코로나19 오미크론 세부계통 BA.2.12.1이 추가 검출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또다른 세부계통 변이 BA.4와 BA.5도 확인돼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미크론 BA.2.12.1 해외유입 11건과 국내감염 2건이 추가로 발견됐다.

BA.2.12.1의 국내감염 사례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 10일까지 확인된 BA.2.12.1 감염 6건은 모두 해외유입 사례였다.

BA.2.12.1은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린 BA.2보다 전파력이 20% 이상 강한 것으로 알려진 변이다.

오미크론 BA.4와 BA.5도 국내 유입돼 방역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BA.4는 해외유입 1건이 확인됐다. 지난달 27일 남아공에서 입국한 뒤 확인된 사례다.

BA.5는 2건 발견됐는데, 이 가운데 1건은 지난 12일 인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국내감염 사례로 무증상자다.

BA.5 다른 1건은 터키에서 지난 8일 입국해 12일 확인된 해외유입 사례다. 남아공 등에서 점유율이 증가하는 BA.4와 BA.5는 BA.2보다 빠른 검출 증가 속도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행히도 아직까진 BA.4와 BA.5가 중증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BA.4와 BA.5는 바이러스 표면 스파이크 부위에 변이 상황이 있어서 면역 회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국내 상황에서는 전파력에서 특별한 이상 징후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바이든, DMZ 방문 추진…대북 메시지 가능성
20~22일 방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22일로 잡힌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DMZ)를 찾을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7차 핵실험을 강행하려는 북한을 향한 '도발 자제 촉구'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DMZ를 방문하는 방안이 한미 간에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 일정의 특성상 마지막 순간에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DMZ는 가능한 방문지 중 하나로 검토 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DMZ를 찾는 경우가 많았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3년 처음으로 DMZ를 방문했고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DMZ에 발을 내디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방한 당시 방문을 위해 헬기를 타고 출발했다가 짙은 안개 때문에 기수를 돌린 바 있지만, 2019년 6월 DMZ에 있는 판문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했다.

미국 대통령이 DMZ를 찾는 데는 남북 대치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는 동시에 핵·탄도미사일 등으로 국제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북한의 코앞에서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도 DMZ를 찾는다면 마찬가지 배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확장억제, 연합방위태세 등 안보 공약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DMZ에서 북한에 도발 자제,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한에서 경기 평택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지분·부동산·삽니다
(주)오천경매. 010-3605-5000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 강(6개월 과정)
일 시 : 2022. 5. 3 (화) 오후7시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수강료 : 풍수 + 사주 20만원 (매월)
공개강좌(무료)
일 시 : 2022. 4. 26 (화) 오후7시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2246-1508

30년쯤전에 연락이후 소식을 모르는
기성권(승권) 67년생 남
찾습니다
친어머니 이 수 연
아버지는 법원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오래전사망
동생 이 재 선 HP. 010-5591-7208
연락 바랍니다

식품공장매매
전남 강진군 강진읍 현 가동중
HACCP 인증 (~2025년 1월)
멸균기, 금속검출기, 자동포장기 등 레토르트 제조 설비 완비
공장 대지면적 620㎡/ 총 면적 = 478평/ 건축면적 198㎡
경량철골구조(2018년 완공)/ 주택 포함 (신축, 넓음)
생산 제품 (네이버 평점 4.7) 및 HACCP 운영 도움 가능
매매가 6억 (모든 설비 포함)
매물 사진 및 추가문의 010-3614-3007

산행안내
5월22일(일)
▲광주kj산악회 5월22일(일) 경북청송내륙의오지,신성계곡유네스코지질녹색길,한반도지형,백색탄,방호정,공룡발자국,적벽,걷기좋은트레킹 ※염주체육관05:00,동아병원05:05,롯데백점05:10,광주역05:15,문예후문05:25,비엔주차장05:30 ※다음카페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

합병계약해제공고
주식회사 지우피엠씨(구. 주식회사 청우건설), 우미자산관리 주식회사, 주식회사 명상건설간 체결된 합병계약은 경영상의 이유로 2022년 5월 13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4월 29일 채권자이의제출공고 및 구주권제출공고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2022년 5월 18일
주식회사 명상건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209(우산동)
대표이사 오 병 진

합병계약해제공고
주식회사 지우피엠씨(구. 주식회사 청우건설), 우미자산관리 주식회사, 주식회사 명상건설간 체결된 합병계약은 경영상의 이유로 2022년 5월 13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4월 29일 채권자이의제출공고 및 구주권제출공고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2022년 5월 18일
주식회사 지우피엠씨
(구. 주식회사 청우건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20, 9층 907호(도곡동)
대표이사 구 본 일

합병계약해제공고
주식회사 지우피엠씨(구. 주식회사 청우건설), 우미자산관리 주식회사, 주식회사 명상건설간 체결된 합병계약은 경영상의 이유로 2022년 5월 13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4월 29일 채권자이의제출공고 및 구주권제출공고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2022년 5월 18일
우미자산관리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209(우산동)
대표이사 김 병 권

주식분할로 인한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2년 5월 16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1주의 금액10,000원의 주식 1주를 분할하여 1주의 금액 금 1,000원의 주식 10주로 분할하기로 하였으므로 구주권을 가진 주주님과 질권자 또는 주식분할에 이의가 있는 주주께서는 이 공고의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 또는 이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18일
주식회사 신양씨앤에스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에코길 27-10
대표이사 정 태 영

판 결 공 시
•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고정119 수산업법위반
• 피고인 : 김 희 현
위 피고인은 수산업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2년 5월 11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강 지 성

판 결 공 시
•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고정119 수산업법위반
• 피고인 : 강 승 민
위 피고인은 수산업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2년 5월 11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강 지 성

판 결 공 시
•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고정119 수산업법위반
• 피고인 : 조 정 미
위 피고인은 수산업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2년 5월 11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강 지 성

판 결 공 시
•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고정119 수산업법위반
• 피고인 : 박 화 숙
위 피고인은 수산업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2년 5월 11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강 지 성

光州日報 지국 안내
북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충 장 222-8171
남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운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光州日報
구독문의
신문 220.0551
예향 220.0550